

영암 ‘달빛 수제맥주 페스티벌’ 연다

내일 영암읍서 플라마켓 · 다양한 공연

영암군이 3일 저녁 영암읍 오거리 일대에서 ‘영암 달빛 수제맥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9월 열린 ‘영암 달빛축제’에 이은 행사로, 당시 주민의견을 수렴해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플라마켓 콘텐츠를 추가해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암군의 수제맥주 ‘늘찬맥’을 선보인다. 이 맥주는 영암군과 주류 제조 전문기업인 ‘무등산브루어리’가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한 것.

늘찬맥은 영암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 맛과 향이 특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페스티벌에서는 영암의 쌀, 고구마, 멜론으로 만든 3종류의 늘찬맥을 시음

할 수 있다.

페스티벌에서 영암군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변검마술사 김영록,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정선호, 트로트 가수 풍금이 출연하고, EDM공연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다양한 공연 사이는 페스티벌 참여자들을 위한 ‘맥주 팸리 마시기 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행사다. 영암 수제맥주 늘찬맥과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고, 다양한 공연과 플라마켓을 즐기며 지역 경제와 상가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완도, 해풍 맞고 자란 ‘소안 감귤’ 본격 수확

올해 수확량 180톤 예상

완도군 소안도에서 재배되는 노지 감귤이 수확철을 맞았다.

소안도 감귤은 대부분 극조생종을 심어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수확한다고 1일 밝혔다.

소안도 감귤은 풍부한 일조량과 청정바다의 해풍을 맞고 자라 평균 당도가 10~11브릭스(Brix) 정도로 당도가 높다. 특히 수확 후 부패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신선도가 좋아 보관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올해 180톤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안도 감귤은 지난 2009년 작목반이 결성되면서 본격 재배되기 시



작했고 현재 62개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다

작목반 모두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GAP) 인증을 획득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감귤은 대부분 택배를 통해 직거래하거나 소안농협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농산물도매시장 등 판매처를 확대해 가고 있다.

/완도=이두식 기자

진도 ‘제9회 군민한글학교 백일장’ 개최

진도군이 지난달 31일 군청 대회실에서 ‘제9회 군민한글학교 백일장’을 개최했다.

군민한글학교는 가정형편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쳐 평생을 까막눈으로 살아온 어르신들을 위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의 장이다.

이날 백일장은 어르신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무궁화와 가족을 주제로 그동안 갖고 묶은 글씨로 배움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됐다.

이번 군민한글학교 백일장에서 대상을 수상한 고군면 지수리의 어르신은 “문화 교실을 통해 한글자한글자 알아가며 배움의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전했다.

군민한글학교 백일장을 주관한 (사)한국문인협회진도지부 김영승 지부장은 “참여한 어르신들의 배움의 성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강진 바다낚시대회 · 해양박람회 ‘흥행 성공’

관광객 1800여명...지역경제 효과 3억6000만 원

강진원 군수 “마랑,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강진군이 개최한 전국 바다낚시대회와 해양박람회가 대회 성공은 물론 지역경제에 효과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에 걸쳐 강진 마랑항 일원에서 ‘혼다마린캡 마랑항 감성돔 낚시대회’와 ‘제1회 강진군수배 마랑항 갑오징어 낚시대회’가 잇따라 열려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은 물론 부산, 광주, 대전 등전국 각지에서 온 참가자, 관광객들까지 총 1800여명이 마랑항을 찾아 전국 대회로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됐다.

첫날 열린 혼다마린캡 마랑항 감성돔 낚시대회에서는 전국 낚시인 150명이 참가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까지 6시간 동안 감성돔 최대어를 놓고 열띤 경쟁을 벌였고 우승은 김은수씨(강진)가 감성돔 2마리 합산 결과 83.5cm를 낚아 10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상했다.

둘째 날 열린 제1회 강진군수배 마랑항 갑오징어 낚시대회에서는 전날 열린 인원보다 2배 더 많은 300명이 참가해 더 많은 갑오징어를 낚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우승은 서왕규씨(광주)가 갑오징어 4.26kg를 낚아 상금 10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바다낚시대회 기간에는 해양박람회 및 혼다서비스캐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 기간 친환경 해양 기차 및 모터보트, 낚시용품 전시 등 새로운 해양문화 및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부스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혼다 선외기를 사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점검과 무상 수리 서비스를 진행해 어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지역 경제도 덩달아 살아났다. 지난달 27일에는 낚시대회로 인해 참가자들이 넘쳐 나 마랑 지역 상가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불볏다. 행사기간 내내 식당, 편의점, 카페, 주유소 이용, 숙박 등에 3억 6000만 원 이상

을 쓰고 간 것으로 추산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1차 산업 위주의 어촌 경제를 3차 산업인 해양레저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발점의 중심에 바다낚시 어선이 선구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년 대회에는 참가인원을 늘려 더 큰 규모로 준비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을 위한 체험 콘텐츠를 보강해 온 가족이 찾을 수 있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목포 ‘현대한국나전 36인전’ 나전칠기 전시 큰 인기

특별전 개막 후 20일간 2만1000명 관람객 발길 이어져

목포시가 근현대 나전칠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현대한국나전 36인전’ 특별전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목포자연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특별전은 손혜원 전 의원에게 기증받은 나전칠기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지난 10월 전시가 시작된 이후 20여일 동안 약 21,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한국나전 36인전은 전시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전과 박물관 일원에서 진행된 서남권유지연패어와 연계해, 시민은 물론 목포를 찾는 방문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별전은 3일부터 오는 8일까지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도 대중의 관심을 이어 나갈 전망이다.

전시에서는 나전칠기의 멋과 장인의 솜씨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수

준 높은 작품 134점을 스토리가 더해진 해설과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전시 작품은 1937년에 제작된 전성규의 대표작 ‘산수궐’을 시작으로, 무형문화재 김봉룡 30점, 김태희 11점을 비롯해 이형만, 손대현, 강창원, 이익종 등 대한민국 나전의 근현대를 꿰뚫는 대표 유물로 이루어져 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시 ‘현대한국나전 36인전’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열리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 관람은 별도의 신청없이 입장할 수 있고 전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목포=김근호 기자

신안, 개별공시지가 공시

7월 1일 기준 6017필지

신안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 601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산정(검증)된 6017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재조사·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오는 12월 22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www.shin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그 밖에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신안=강속북 기자

해남, 공공비축미곡 가루쌀 전량 매입... 전남 최대 규모

1564톤 규모 올해 첫 매입... 오는 9일까지 실시

해남군은 지난달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가루쌀 매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남군의 가루쌀 매입 예상량은 1564t으로 전국 2위, 전남 1위 규모이다. 가루쌀은 올해 처음으로 매입하는 품종이다. 매입 검사규격은 일반벼의 제현율보다 1개 등급씩 완화해 최저한도가 특등 78%, 1등 74%, 2등 65%, 3등 65% 미만이다. 수분은

14% 이하, 타 품종 혼입율은 3% 이하가 기준이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땀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쌀로 밀가루 대체에 적합, 수요전망이 매우 밝은 편이다.

또한 6월말 늦이앙이 가능해 밀,보리, 조식료 등을 재배하는 이모작에 유리한 품종으로 정부는 쌀 과잉생산에 대응해 2026년까지 가루쌀 생

산단지를 200개소까지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농림축산식품부 ‘2024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사업’ 공모에서 교육·건설링 10개소, 시설·장비 4개소가 선정됐다. 전남 최다 선정으로 해남군은 내년 가루쌀 재배면적을 77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의 올해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오는 17일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11월 8일부터는 건조벼 매입이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해남=김동주 기자



해남의 맛에 물들다

해남미남국제

HAENAM FOOD FESTIVAL

2023. 11. 3. (금) - 11. 5. (일)

두륜산도립공원 일원

추억의 구이터 | 515 김치비빔 | 우리가족 요리대회 | 미남 사생대회
해남 막걸리 만들기 | 2023 미남 떡국 나눔 | 내 품 안에 고구마 등